



준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답벼슬 아닌 용틀임 되기를...

‘답벼슬’ 또는 ‘비천룡’의 형국을 띠어 이름 붙여진 계룡산은 금계포탄(金鷄抱卵) 비룡승천(飛龍昇天)의 산세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절경에는 명승대찰이 빠질 수 없어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대찰이 즐비하다. 올해 3월 경 불교환경연대와 오채주지 승려 취재 차 계룡산 갑사와 신원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당시 조용한 갑사 산문 앞 주차장 인근 위탁지구에서 스피커를 통해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노래 소리에 흥얼거림도 잠시 ‘노래소리에 산사 특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사에는 고즈넉한 산사만의 소리와 맛이 있다. 새의 지저귎과 조용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 있는 듯 없는 듯한 스님들의 발자취 같은 것들이다. 많은 불자들은 산사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한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을 받고, 고갈 문간에 고급 승용차가 있으면 마치 갑부수출을 찾았거나 아닌 수도꼭지도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승가공동체에도 그에 맞는 문화가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갖은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괴문서’ 유포와 그에 대한 조사, 발표를 두고 후보부와 승적관리 부처인 총무부 간의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종회의원들의 특정후보 지지로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야합’이나 ‘화합’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각 예비후보들이 주장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도 ‘검증’과 ‘분란’ 사이에서 이설이 많다. 불협화음은 선거 당일까지, 자칫 선거 이후까지 계속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과열양상에 정작 각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이어가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지켜보며 어떤 것이 종교다운 선거문화일까를 생각하고 있다. 불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산사’에서 ‘법음(法音)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닐까?’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으로 선출을 드날린 효봉 스님은 “중 벼슬은 답 벼슬만도 못한 것”이라며 그 허상을 지적하신 바 있다. 각각의 후보들이 진정 애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나선다면 ‘스님 소임이 비천룡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각 후보의 여법한 선거운동으로 이번 선거가 ‘답벼슬 다툼’이 아닌 ‘비천룡의 용틀임’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淨)의 ‘현대불교’를 이룩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선거 끝났지만 문제 산적

태고종, 종단 부채·종헌중법 개선 등 시급한 과제

태고종이 우려곡절 끝에 제24대 총무원장으로 인공 스님을 선출했다. 선거 과정과 법원 가처분 등을 통해 선거법 등 제도미비를 드러낸 태고종은 선거제도 개선과 종단 화합 전 집행부 종무조사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공 스님이 이끄는 집행부의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전 집행부에 대한 종무조사가 꼽히고 있다. 인공 스님도 종무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종단부채 문제 발생의 책임소재 규명은 향후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봉원사 부채를 비롯한 종단 부채 문제는 차기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태고종 종책위는 8월 △봉원사 연지원 남골당 61억 △노산노인요양병원 공사 24억 △천중사 불사 7억 등 총 92억 원의 종단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에도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 증축도 11월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국고보조금 환급 등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조계종과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도 주요과제다.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은 봉원사 소유권을 두고 법원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아울러 이번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드러난 종헌·종법의 미비점 개선과 선거제도 개편 및 확립은 오랜 중회활동과 종회의장을 역임한 인공 스님의 역량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 외적인 현안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조화를 이루는 일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심부름꾼으로 앞장설테니 모두 참회하자”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

인공 스님은 당선 이후 첫날인 9월 23일 전남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예방하고 당선 인사를 드렸다.

또 24일에는 서울 남부총무원장 법진 스님 취임식에 참석하고 지방 종회의장과 지방 사정원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인공 스님은 9월 22일 당선소감을 통해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하며, 선거가 원만하고도 투명하게 치루져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봉원사 부채관계 등 종단 현안 문제 해결에 더욱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알고 낮은 자세로 충실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도들의 심부름꾼

으로 앞장설 테니, 지난 과오를 잊고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자세로 나서자”며 특히 함께 후보로 나선 대은, 지허, 도산 스님의 후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인공 스님은 “종단이 지난 3년여 동안 분열을 겪어왔고 불교 4대 종단 가운데 가장 위상이 떨어졌다. 재임기간 인재양성과 종단안정에 매진해 예전의 위상을 되찾아 놓고 싶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해 “새로 모실 부원장 3분과 협의해 종단에 신선하고, 훌륭한 분들로 모실 계획”이라며 “집행부 구성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알리겠지만 10월 10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공명정대한 선거로 원용화합”

원로의장 유시·총무원장 담화문 이어져

공정하고 청정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당부하는 원로의장 유시와 총무원장 담화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9월 24일 내린 유시(諭示)를 통해 “원용화합의 계기가 되라”고 당부했다.

종산 스님은 “이번 선거는 불법홍포를 위한 종단 행정 대표를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종정 스님과 원로의원 대종사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산 스님은 또 “종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종행위에 관한 종헌중법으로서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이에 앞선 2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과정의 금권, 비방, 각종 부정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다해 끝까지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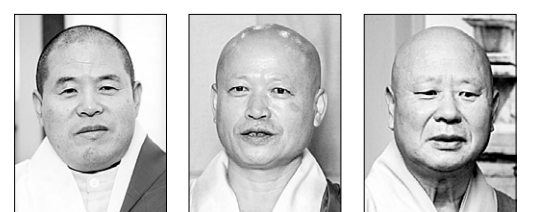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현 종단 집행부는 종헌·종법에 의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명의 비방성 투서는 해종행위로, 반드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선거 출마선언 줄이어

자승·각명·대우 스님 등 예비후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줄이어 있다.



자승 스님, 각명 스님, 대우 스님.

전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정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9월 24일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 총회에서 총무원장 후보에 민장일치로 추대됐다.

화엄회와 무차회, 무량회, 보림회가 맺은 선거 연대방침에 따라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에게 단일 후보로 지지받게 됐다.

4대 종책모임의 자승 스님 추대식은 9월 29일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후보로 추대된 직후 “기꺼이 종단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결심까지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애종심과 불교 중흥을 이룩하겠다는 원력과 의지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린 종단’을 지향해 종단 소통을 원활히 하며, 종단 밖 타 종단이나 이웃 종교 그리고 정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33대 총무원장은 각종 의혹이 없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29일 후보 추대 기자회견에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6대 기초와 12대 분야 종책을 담은 화엄회 종책자료집이 배포됐으며, 화엄회는 선거여비 및 숙식제공을 받지 않는 것도 결의했다.

이에 앞서 각명 스님(법주사 불국암 주지)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스님은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 보다 어떻게 하면 청정한 인물을 뽑을까가 화두가 돼야 한다”며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주님의 요청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개혁종단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 총무부장을 역임한 대우 스님(정음 벽원선원 회주)도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우 스님은 9월 22일 서울 미안마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선거로 총무원장 선거가 승단의 양심이 살아있는 잔치가 되도록 하자”며 출마표를 던졌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승적 논란 해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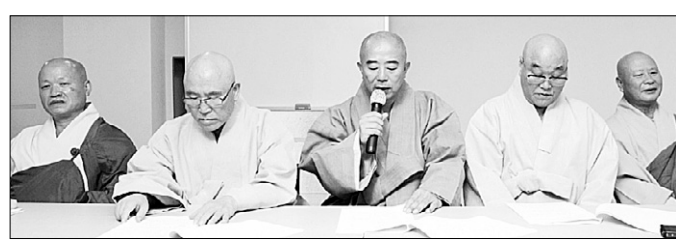
월서 스님 등 예비후보자 5인 공명선거 성명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 자승 스님의 승적 관련 논란을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월서 종하 정년 대우 각명 스님 등 다섯 예비후보 측은 9월 24일 템플스테이센터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검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공명선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섯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자승 스님에 대해 “이미 선거는 은밀히 진행된 ‘편법과 회유로 이수라 장’이 되고 있다”며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과 무당파 종회의원 등 종회 대다수에게 총무원장 후보로



자승 스님 등 예비후보들이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명·종하·정년·월서·대우 스님. 월서·정년 스님은 이날말 출마할 것을 밝혔다.

추대될 자승 스님 측은 정년 비판했다.

이어 다섯 후보 측은 “화합을 빌미로 부정을 감싸는 행위나 주장을 한다면 그야말로 ‘사자신중(獅子身蟲)’이라며 “모 스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청정한 승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일 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1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주최·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10·27법난 기념법회
일시 : 2009년 10월 9일 (금) 오후 1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 10·27법난 기념심포지움
일시 : 2009년 10월9일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 10·27법난 기념사진전 “언론보도로 본 10·27법난의 진실”
일정 : 2009년 10월9일 ~ 10월 27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

▶ 문의처 : 02-2011-182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